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69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3)지미봉

-지미봉, 귀중한 자원 간직, 고지리 환경 해석에 도움

입력 : 2003. 10.24. 00:00:00



지미봉은 제주섬의 땅 끝을 상징하는 오름으로 유명하다.

해발 165m의 지미봉은 오름 자체의 상징성도 크지만 그 자락에는 패총 및 습지유적을 품고 있다. 때문에 이곳 일대는 제주동북부의 핵심유적으로 꼽히기도 한다. 선사문화 뿐 아니라 고환경·고지리를 규명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규모의 철새도래지와 수답 염전지대 등 삶의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탐사단은 바로 이러한 자연·인문환경의 중요성에 주목 지미봉 및 주변일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미봉 일대는 종달반도 등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로 어떤 고환경·고지리를 간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접근 필요성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용포 생태교육팀장을 비롯한 환경지킴이들도 지미봉 일대 조사부터 합류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종달리사무소에서 만난 양승식 이장과 채정목 노인의 안내로 대정군수 채구석 판관이 처음 바닷물길을 막아 논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제1수답지역 답사에 나섰다. 철새도래지 깊숙한 곳 속칭 '신속곳' 일대는 갈대밭이 무성한 사이로 초기에 쌓은 둑 흔적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이곳은 탐라순력도 탐라지도 제주삼읍도총지도 등 고지도상에 '용항포'(龍項浦) 등으로 나타난다. 용의 목과 같은 모양을 한 포구(개)라는 데서 용항포, 즉 용목잇개라 불린 것이다. 채구석 판관은 약 1백여년전 이곳에 둑을 쌓고 바닷물을 막아 논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났고 때문에 '대정놈의 소(沼)'라 부르기도 했다고 전한다.

제2수답지역은 종달리 동남쪽 신전동과 마을 사이 32ha에 달하는 곳을 일컫는다. 소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사업은 1957년부터 시작돼 1969년에 준공됐다. 현재 벼베기가 끝난 이곳은 허허로움만이 들뜬 가득 묻어난다.

지금은 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이곳은 제주도에서 제염이 최초로 이뤄진 곳이기도 하다. 16세기 중반 조선시대 강려 목사가 종달리 해안모래판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제염을 장려한 것이 시초다.

이후 하도리와 성산읍 시흥리 염전도 생겨났다고 전한다. 종달 천연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조정에 진상은 물론 전라지역까지 보내졌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났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을 일컬었던 '소금바치'라는 말은 이처럼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한데서 연유했다.

이러한 자연·인문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지미(地尾·指尾·只未)봉은 경사가 급하고 원추형 모양의 분석구가 특징이다. 오름정상 부근에 있었던 지미연대는 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정상에서는 바다까지 이어진 용항포의 물길이 뚜렷하다. 용항포가 끝나는 내륙 깊숙한 곳에는 도내에서 처음 발굴된 습지유적이 자리해 있다.

습지유적에서는 고대 중국제 화폐인 화천(貨泉, A.D. 14~40년)을 비롯 다양한 토기편, 패각류가 발굴됐다. 화천은 중국 한반도 일본을 잇는 고대교역로상에서 나타나는 표지적 유물이다. 이것은 이곳 일대가 고대항포구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 습지유적의 맨 아래 유기물 층에서는 밀물과 썰물때마다 바닷물과 담수가 연동해서 흐르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해안선은 바로 지미봉을 휘감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미봉 북쪽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은 육지쪽의 하도리와 종달 우도와는 다르다. 즉 육지쪽이 30~50만년전에 형성된 표선리현무암층을 이루고 있다면 지미봉을 중심으로 한 종달반도 일대는 그후에 형성된 화산성암설사태층을 이룬다.

이러한 탐사결과를 토대로 한 고해안선에 대한 도면복원 결과는 이처럼 지미봉 일대의 고환경·고지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 기고]지미봉 일대 내만지역 형성

지미봉 일대의 고지리 복원을 위해 논과 갈대 숲에 분포하는 토양을 조사한 결과 조개파편을 함유한 사질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질은 조석차가 심한 간석지(tidal mud-flat) 환경에서 주로 형성된다. 또한 이들 논과 갈대 숲은 역사적으로 식량작물 생산을 위해 19세기 초부터 시작된 간척사업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간척사업 이전의 고지리를 복원해 보고자 하였으며 복원방법은 현재 지미봉 북서쪽에 위치하는 송어·송어를 양식하는 내륙바다의 수면과 유사한 지형고도를 육지방향으로 추적하면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청문조사를 근거로 작성했다.

지미봉 인근에 대한 고지리 복원 결과 현재의 논과 갈대 숲을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은 바다로부터 육지방향으로 좁고 길게 연결된 내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미봉과 그 북쪽의 반원형 부채모양의 지역은 단지 폭이 약 1백미터 부분만이 본도와 연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지미봉에 대한 인위적인 침식이 활발하기 이전에는 섬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간척사업 이전의 사리때에도 지미봉 주변에 바닷물이 흘러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내만지역은 현재의 성산일출봉과 본도 사이에 형성돼 있는 내륙바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썰물때에는 바닷물이 물러가고 대부분 지역이 드러나는 갯벌환경을 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미봉은 화산활동 초기에는 마그마 내에 모인 많은 양의 가스함량에 의해 비교적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 화산암편과 화산탄 등이 화구주변에 떨어져 현재의 다랑쉬오름과 유사한 형태의 사면경사가 급하고 원추형 모양의 분석구를 형성했다.

지미봉의 용암류 분출과 화산성암설사태층의 형성에 의해 북쪽 방향으로 화구가 트여진 현재의 오름형태와 반원형의 부채모양으로 펼쳐진 비교적 평탄하면서도 작은 구릉에 많은 지형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기고정차연 위원

(정차연 위원 농업기반공사제주본부·이학박사 / 지질분야)

[포커스]종달염전(鹽田)-제주제염의효시

종달염전은 제주도 제염의 효시인 동시에 소금생산의 주산지였다. 한국수산지 제3집(1910)에 의하면 '조선 중엽 1573년 강려 목사가 종달리 해안 모래판을 염전 적지로 지목하고 이 마을 유지를 육지부로 파견하여 제염술을 전수케 하여 제염을 장려한 것이 제주도 제염의 효시'라고 적혀 있다.

김상헌의 남사록(1602)은 '강려 목사가 종달 해변의 노지를 보고 도민들에게 해염 생산법을 가르쳐 소금을 만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00년대 종달리 마을 3백53호 가운데 1백60명이 제염에 종사했고 소금을 생산하는 가마가 46개가 있었다고 한다. 염전지는 종달 동동의 논밭이다. 제염에 참여하려는 인구가 대거 유입됐던 동동은 당시 '큰 동네'로 불리웠다. 주민들은 '접'을 만들어 제염을 위한 가마 구입이나 사용을 공동으로 대처했다. 염전조성, 해수운반, 연료채취 및 운반, 전오(煎熬)과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금 판매에 나섰는데 판매인들을 '소금바치'(종달 염전), '염쟁이(구염염전), '소금 졸래기'(일과염전)라고 불렀다.

하지만 종달 제염업은 해방후부터 육지부 천일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수지를 맞추지 못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금은 염전지가 수답(제2수답)으로 바뀌었다. 염전터를 수답으로 바꾸는 공사는 6.25 이후부터.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 공사가 답보상태를 거듭한 끝에 1969년에야 32ha의 옥토가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제주도의 간척지 사업으로 성공된 첫 케이스다. 현장에 당시 도지사 북군수 등에 대한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바닷물 밀려드는 옛날 갯벌이 황금빛 물결치는 옥답이 되어...”라고 감동적인 문구가 이어진다. 하지만 이 곳의 쌀농사도 수입개방화와 식생활 개선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형상이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한승철기자 schan@hallailbo.co.kr

[사진설명]종달리 지미봉에 오르면 두산봉과 마을전경이 발 아래 펼쳐진다. 사진 왼쪽으로 염전이 논으로 변한 간척지가 보이고 마을 취락형성은 지미봉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 이윤형 차장(기획특집부) 강경민 사진부 기자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